운전대는 절대 안 잡는 믿음

(예레미야 40:1~16)

1.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3.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4.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 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운전대는 절대 안 잡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운전대는 절대 안 잡는 믿음’
저희 부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오랜 세월 지켜본다면 무척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남편과 아내가 차를 타면 남편이 운전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고속도로 같은 데서 장시간 운전을 하면 어깨도 결리고 몸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운전을 부탁하면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코 남편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은 아닙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는 저의 입속의 혀처럼 움직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차만 타면 제가 죽을 지경이 되어도 절대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의 어머니께서 방문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출근해야 했기에 먼저 나가면 어머니는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없을 때 말씀하시기를 운전을 참 예쁘게 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잘 한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예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라고 했더니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꽉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낯설었습니다. 시어머니 보시기에 며느리가 운전하는 모습이 어떻기에 꽉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라는 것일까요? 하여간 운전을 그렇게 얌전하고 편하게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집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기차를 타야 될 일이 있어서 함께 가도 제가 운전을 해서 가고 아내가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방식입니다.

믿음에 무슨 방식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것은 교리공부나 성경공부를 통해 배웠고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로 아는 것과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기 위해서는 실제로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생애의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운전대 잡기를 막무가내로 거부해야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7장 19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믿고 있음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바로 내 생애의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함락시켰을 때에 왕궁 시위대 뜰에 있는 옥에 갇혀있었습니다. 옥에 갇혀서 조국의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옥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예레미야는 딱히 바벨론을 도운적도 없었고 바벨론에 호의적이지도 않았으며 바벨론의 앞잡이는 더욱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계속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보기에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해 특별히 우호적인 인물로 비추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관심을 두고 옥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상하게도 예레미야가 다른 유다의 포로들과 함께 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게 우연히 발견되어 다시금 풀려나게 됩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갈 판이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바벨론의 군인들이 포로로 잡아들였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은 예레미야가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명에 의해 풀려났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나는 옥에 갇혀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명에 의해 풀려난 사람이다. 나를 사슬로 묶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상황을 물어서라도 예레미야를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기껏 풀려났는데 다시 잡히는 상황을 묵인하고 받아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신변의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던 유다인들, 남게 된 유다인들,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절대로 내 생애의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조국은 망했고 모든 백성의 목숨은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린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와중에서도 실제로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됨을 드러내면서 선언하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사건을 봄으로써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도 남아있던 사람도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정복자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려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 침묵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호의를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비록 당신이 정복자이고 왕일지라도 나의 생애는 당신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 생애를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남게 되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이것은 왕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결과입니다.'라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던 도중에 다시 시위대장의 눈에 띄어서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게 됩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호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온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확인시켜주었던 것입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포로들 틈에 끼어있던 예레미야를 발견한 것은 전적인 우연이었습니다. 기껏 옥에 갇혔던 사람을 풀어주었더니 다시 사슬에 묶여서 잡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자신과 함께 가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유다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보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풀어주었을 때에 유다에 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 옛날에 정복자의 권한은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이 정복자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드러내었고,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민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설교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복지를 떠나 머나먼 이국땅에 갈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마음을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교훈을 자신에게 일어난 신변상 사건을 통해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유다 땅에 남느냐 포로로 잡혀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남든지 잡혀가든지 느부갓네살 왕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인생의 참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느냐 혹은 유다에 남느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가든지 안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중요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인정하려고 한다면 삶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가 옳고 좋게 여기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기 위해서 말 한 마디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이 말 한 마디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 한 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과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에서 하나님의 운전자 되심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과제였습니다. 제 아내가 저와 함께 차를 타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운전자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야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말 한 마디를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 한 마디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운전에 인생을 맡겼던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은 바람을 가질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바람을 가지셨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절대로 인생의 바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내 삶에 대한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루어지지 않

을 일이 없기에, 삶에 대한 나의 고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생각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다면 그 문제는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걱정과 염려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운전대를 잡고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차를 타는 한 제 아내는 앞으로도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절대로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말 한 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내로써의 모습입니다. 운전은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의 운전대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근본적인 이유와 더불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전을 하실 때에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전후좌우로 치우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상관하려 들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내가 다시 운전대를 잡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 관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벌어진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마치 시계추와 같습니다. 마음은 시계추의 움직이지 않는 윗부분에 가있고 몸이 있는 이 땅의 삶은 시계추처럼 좌우로 움직입니다. 혹은 그네와 같습니다. 그네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몸이 처한 상황은 그네처럼 움직이고 시계추처럼 움직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진창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좌로 움직였습니다. 구스인 내시 에벳멜렉의 간청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건져졌습니다. 삶이 우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좌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려납니다. 우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시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포로로 분류되어 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좌로 움직였습니다. 그랬다가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의 눈에 띄어서 풀려납니다. 우로 움직였습니다. 삶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시계추와 같습니다. 구원은 육체가 놓인 상황이 특정한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장에서는 빈민들이 포도원과 밭을 받아서 농사

지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과 왕자와 고관들은 참담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멸망과 구원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그 자체가 멸망이거나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빈민들이 포도원과 밭을 받아서 농사짓고 살게 된 것이 구원입니까? 진짜 구원은 우리 몸이 놓인 상황이 시계추처럼 좌우로 움직여서 어떤 때는 불통의 상황이 되고 어떤 때는 잠깐 동안 형통의 상황이 됩니다. 어떤 때는 그네가 앞으로 갈 때처럼 진전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네가 뒤로 가서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안에 안긴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안겨 있기 때문에 평강이 유지되면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육체의 상황으로 내려오면 괴롭습니다.
금방 웃었다가 금방 웁니다. 그러나 이 웃음도 가짜고 울음도 가짜입니다. 즐거워해도 속는 것이고 슬퍼해도 속는 것입니다. 시계추처럼 움직이고 그네처럼 움직이는 육체의 상황에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내려와 있는 이유는 내 생각과 바람과 계획으로 인생을 운전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후좌우로 흔들리면서 날마다 쥐어터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좌우로 치우치는 것 같아도 평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진전이 있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아도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절대로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안 됩니다. 내 생애에 대해서 내 주변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소원이 생길 때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다른 바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상황으로부터 유다에 남아있는 행운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말 한 마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에 남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아 있게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호의를 베풀거나 말거나, 그 호의를 베푼 당사자가 예레미야인 것을 군인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오해해서 사슬로 결박하거나 말거나,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 다음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리 생애의 운전대는 단 말 한 마디로도, 단 생각 한 조각으로도, 단 하나의 바람으로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매순간 생애의 운전대를 잡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바라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전 죄적인 기질을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함을 통하여 묶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침 삼키는 동안에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막무가내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단 말 한 마디로도 내 생애의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내 마음이 어떤 순간이나 어떤 장소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